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관리 Kashkari, “핵심 물가고 계속되면 금리 4.5%~4.75% 유지해야”
- NYT: 미 봉급 생활자, 내년에 연방소득세 줄어든다

[미국 금융]

- JP 모건 보고서: Top 10 Takeaways
투자 환경 전망: 글로벌 경제, 러시아 전쟁과 미국 정치/달러

[부동산]

- Bloomberg: 뉴욕시 등 대도시 사무실 입주율 최고치... 여전히 50% 미만
- Bloomberg: 미 신규주택 착공 준다... 높은 모기지율이 수요 압박

[글로벌 경제]

- WSJ: 시진핑 3기, 미 국가이익에 좋을 수도

[오일]

- CNN Business: 미 긴급 석유 비축량 38년래 최저... 아직 비축량 있어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 WSJ: 말라버린 미시시피 강...미 공급망 타격
- WSJ: P&G, 달러 강세로 수익 감소 예상
- WSJ: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2백 40만명 늘려... 반전 보여
- WSJ: 뉴욕 북부 아마존 노동자들, 노조 결성 반대표 던졌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Can't Pause Rate Hikes With Core Inflation Accelerating, Kashkari Says

연준 관리 Kashkari, “핵심 물가고 계속되면 금리 4.5%~4.75% 유지해야”

-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 Neel Kashkari는 “미 인플레이가 근본적으로 계속 가속화되면 기준 금리를 4.5%~4.75%(현재는 3%~3.25%)로 올려 이 같은 긴축 금융 정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에 가장 강력한 매파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와 싸우기 위해 수요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 그는 또한 인플레이가 노동 시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공급망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왔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NYT: Inflation Adjustments Mean Lower Tax Rates for Some in 2023 미 봉급 생활자, 내년에 연방소득세 줄어든다

- 앞으로도 식품비, 에너지 등 필수품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내년에 소득세가 줄어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 한마디로 과세율이 인플레이에 연동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 연 소득이 18만 2천 1백 달러, 부부 합산이 36만 4천 2백 달러까지는 세율이 32%가 적용된다.
- 특히 개인 소득 9만 5천 3백 75달러와 부부 합산 19만 7백 50달러까지는 24% 세율이 그리고 개인 4만 4천 7백 25달러, 부부 합산 8만 9천 4백 50달러까지는 22%가 적용된다.

NYT 기사

[미국 금융]

JP 모건 보고서: Top 10 Takeaways from Our Investor Seminar at the Time of the IMF/World Bank Fall Meetings 2022

투자 환경 전망: 글로벌 경제, 러시아 전쟁과 미국 정치/달러

1.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체감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에 도달하기 전에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2. 금융 불안정 리스크가 경제적인 리스크를 능가하고 있고 그 변동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3.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신용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4. 이머징 마켓 부채 재조정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국가 부채 위기는 선진국들에 일어날 수 있다.
5. 특히 유럽의 경우 하향 리스크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체 아니면 2.5% 역성장을 보일 것이다.
6. 핵무기의 전술적인 사용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러시아는 핵심적인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며 휴전은 단시일에 어려울 것이다.
7. 중국은 핵심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8.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상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당 후보로 지명될 것 같지 않다.
9. 달러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달러 강세는 적어도 금년말까지 가능하다.
10. Stable coin을 받치고 있는 기술은 금융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강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Bloomberg: Offices in New York, Nationwide Hit Peak Post-Pandemic Occupancy****뉴욕시 등 대도시 사무실 입주율 최고치... 여전히 50% 미만**

- 보안회사 Kastle Systems에 따르면 뉴욕시 사무실 입주율이 44%로 지난 2020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텍사스 오스틴 등 10대 도시 평균 비율도 49%로 팬데믹 이래 최고치이다.
-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집에서 일할 수도 있는) 미국인의 30% 정도만 사무실 풀타임 근무, 반 정도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머지는 원격 근무하는 것이라는 것.
- 한편 뉴욕시 버스와 전철 이용 숫자도 지난 2019년 평균의 74%까지 늘어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using Starts Decline as Mortgage Rates Weigh on Demand**미 신규주택 착공 준다... 높은 모기지율이 수요 압박**

-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9월에 줄었고 단독 주택 건축 신청 건수도 줄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수요와 건축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 주택 시공은 9월에 8.1% 줄어 연율로 1백44만채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독 주택의 경우 연간 89만2천채로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둔화됐으며 다세대 주택 시공도 줄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WSJ: Why Another Xi Jinping Term Might Be in U.S.'s Interest****시진핑 3기, 미 국가이익에 좋을 수도**

- 미국은 최근 10년간 중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해당 장비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 서구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이 될 경우 경제적으로 둔화되어 미국 국가이익에는 좋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 중국은 그동안 최근 남중국해를 군사화했고 한국 호주 리투아니아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국경 지역에서 인도와 충돌했다. 시 주석은 경제 개혁을 기치로 올라섰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말했다. 오히려 자기 이상화와 제로 코비드 정책을 시행했다.
- 오히려 시진핑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전자상거래 업체를 포함해 기업들은 규제를 해왔다. 공산당 정강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핵무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WSJ 기사

[오일]

CNN Business: America's emergency oil stockpile is at a 38-year low but it's still got firepower left

미 긴급 석유 비축량 38년래 최저... 아직 비축량 있어

-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OPEC+의 석유 감산 발표 이후 석유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아낌없이 방출해왔다. SPR의 석유량은 바이든의 취임 이후 약 3분의 1(36%) 감소해 38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 또 오늘 수요일 저녁 SPR에서 추가로 1천 5백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에너지 가격이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SPR이 줄어들면서 향후 긴급 상황 시 미 정부의 대응 능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 행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67~72달러 이하일 때 SPR을 다시 채워 넣을 계획임을 밝혔으며, SPR이 여전히 4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개월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화력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업계동향]

WSJ: Drying Mississippi River Threatens U.S. Supply Chain

말라버린 미시시피 강...미 공급망 타격

- 미시시피 강의 일부 지역이 30년 이상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져 농업, 석유, 건축자재의 주요 공급로가 타격을 입으면서 바지선과 견인선 운전자, 농부 및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위기에 처했다.
- 10월은 원래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은 달이긴 하지만, 올해 수준은 1988년 최저치에 근접한다. 이번 여름과 가을 미시시피나 오하이오 강에 영향을 준 폭풍이 없었고,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일리노이 주 남부의 여러 곳에서 물류 운송이 중단되며 배송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선박이 강의 모래톱에 강한 힘으로 부딪히는 일이 잦아

지면서 견인차가 바지선에서 분리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수확되어야 하는 곡물의 저장 공간도 문제이다.

- 한편 수위가 낮아지면 담수(fresh river water)보다 무거운 걸프만의 소금물이 강바닥을 따라 서서히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사회의 식수 공급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WSJ: P&G Expects Revenue to Feel Drag From Stronger Dollar P&G, 달러 강세로 수익 감소 예상

- ‘타이드’ 세제와 ‘질레트’ 면도기 제조 업체인 P&G(Procter & Gamble)는 이번 주 수요일 미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3%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 P&G 는 수년간 공급망의 전반에 걸쳐 현지 소식으로 전환하며 통화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했지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상품 가격과 글로벌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 13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 자재, 운임 비용이 상승하며 26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
- 한편 CFO인 Andre Schulten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 9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소비재에 지출을 줄였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Netflix Gains 2.4 Million New Subscribers, Reversing Trend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2백 40만명 늘려...반전 보여

- 넷플릭스는 이번 주 화요일 실적 발표를 통해 2백 4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며 3분기 가입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 최근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사업 분야의 모든 회사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이용자들이 이탈하며 이용자 기반 확대와 수익 창출에 위기를 겪었다. 넷플릭스의 올해 주가는 약 60% 하락한 상황이다.
- 이에 넷플릭스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광고 콘텐츠가 포함된 가입 방식을 출시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의 비밀번호 공유를 제한하고 계정 공유를 하는 시청자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의 두 가지 전략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흥미를 끌 콘텐츠 제공과 비디오 게임 분야 진출에 힘쓰면서 고객 이탈을 막고자 하고 있다.

WSJ 기사

WSJ: Amazon Workers Reject Union in Vote at Upstate New York Warehouse

뉴욕 북부 아마존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반대표 던졌다

- 아마존의 뉴욕 북부지역 노동자들의 66%가 노동조합 결성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 아마존은 최근 노조 결집 시도에 직면하면서 다른 유사 직종에 비해 높은 급여와 건강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또 노조가 결성될 경우 아마존과 노동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노조는 안전 조치와 고용 안정 등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아마존과의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아마존은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결성될 경우 임금과 복리후생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결국 노조를 반대한 노동자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피치, 내년 美 성장률 0.5%로 낮춰...'고통스러운 긴축' 본격화

내년 미국에 경기 침체가 상륙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며 미국의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통스러운 긴축'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피치는 미국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지난 6월의 전망치(1.5%)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올해 미국 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와 무디스 등과 함께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 꼽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